

근현대 전북 유학자 김택술의 일기와 그 의미

김미선*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맺음말 |
| 2. 김택술과 『후창집』 소재 일기 | 참고문헌 |
| 3. 김택술 일기의 내용적 특징 | <Abstract> |
| 4. 김택술 일기가 갖는 의미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근현대 전북 유학자 후창(後滄)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의 일기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서, 김택술 일기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고 의미를 제시하였다. 김택술의 문집 『후창집(後滄集)』에는 <진영화사일완행일기(震泳禍士日完行日記)>, <금화집지록(金華執贄錄)>, <신문화록(莘門話錄)>, <배면암최찬정일록(拜勉菴崔贊政日錄)>, <화도산양록(華島山樛錄)>, <화양동유록(華陽洞遊錄)>,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 등 8편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었다.

8편의 일기를 살펴본 결과 내용적 특징을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스승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와 관련한 여러 경험을 담고 있었다. 전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금화집지록>에, 전우가 임종을 맞고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은 <화도산양록>에 담겨 있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시국과 당대 사람들의 미시적인 삶을 다양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진영화사일완행일기>에는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일이 핵심적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화양동, 금강산, 지리산 등 명승 유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유람 중 지은 시를 담고 있었다. <화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E-mail: paraoho@jnu.ac.kr

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은 유람을 기록한 것으로, 이 3편의 분량이 다른 5편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택술의 일기는 20세기 초반 한문일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의미가 있었다. 또한 김택술의 일기는 일제강점기 유학자의 다양한 면모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주제어 : 후창 김택술, 『후창집』, 일기, 간재 전우, 일제강점기, 명승 유람

1. 머리말

근현대 전북 유학자 후창(後滄)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은 간재(艮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제자 중에서 뛰어나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유학자이자 문장가·교육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김택술이 남긴 글은 42권 20책으로 이루어진 문집 『후창집(後滄集)』에 집대성되어 있다.

김택술과 『후창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박순철에 의해 이루어졌다. 박순철은 『후창집』 소재 글을 바탕으로 김택술의 학문과 사상을 살핀 논문을 2009년에 발표하였고, 김택술의 문예론을 살핀 논문을 2015년에 발표하였다.¹⁾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김택술의 역사인식을 살핀 논문,²⁾ 간재 전우의 성리설 계승과 관련한 논문,³⁾ 그리고 한시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⁴⁾

『후창집』에는 권14에 수록된 <진영화사일완행일기(震泳禍士日完行日記)>, 권17에 수록된 <금화집지록(金華執贄錄)>, <신문화록(莘門話錄)>, <배면암초

- 1) 박순철, 2009,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교사상문화연구』 36, 한국유교학회 ; 박순철, 2015,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研究」, 『중국학논총』 46, 한국중국문화학회.
- 2) 김유빈, 2019,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 - 「관조선사」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찬영, 2022, 「「관조선사」에 나타난 김택술의 역사관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79, 한민족문화학회 ; 함영대, 2023,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 - 20세기 유교 지식인의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리」, 『한문학보』 49, 우리한문학회.
- 3) 김근호, 2022, 「후창 김택술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한국공자학회 ; 신상후, 2023, 「간재 기질체청설의 계승과 발전 - 후창 김택술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한국철학사연구회 ; 배제성, 2023, 「「생지위성」 해석을 통해 본 간재학과 성리설의 특징 - 간재 전우와 후창 김택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6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 4) 강동석, 2023,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衡의 意象과 그 含意」,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 김승룡, 2023, 「後倉 金澤述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 - 擬古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찬정일록(拜勉菴崔贊政日錄)>, <화도산양록(華島山樛錄)>, <화양동유록(華陽洞遊錄)>, <금강산유록(金剛山遊錄)>,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 등 8편의 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류산유록>만이 지리산 유람록을 조사·연구하는 과정에서 번역되었고,⁵⁾ 지리산 유람록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머물렀다.⁶⁾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연구한 저서에서 『후창집』 소재 일기 8편이 언급되긴 하지만,⁷⁾ 565편의 일기 목록을 제시하면서 일기 기간 및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다.

일기에는 당대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저자의 감정이 비교적 진솔하게 담겨 있다. 또 일기를 통해 주변의 생활상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 사학, 철학, 민속학, 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분야 교육에서의 활용 가치도 크다.

김택술은 19~20세기의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그의 일기 속에는 문집 간행 관련하여 검사국의 조사를 받은 일, 스승의 장례를 치르는 구체적인 과정, 우리나라 제일의 명승지인 금강산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이 담겨 있다. 더구나 이들 일기는 후손들이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집에 수록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각 일기의 작품성·완결성은 높은 편이다. 『후창집』 소재 김택술 일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이 작품의 가치와 의의를 밝히고,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김택술 일기에 대한 첫 본격적인 연구로, 작품을 개관하고 내용적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여, 김택술 일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8편 일기의 작성 배경, 일기 기간, 수록 내용 등을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일기의 내용적 특징을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예로 들면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김택술 일기가 갖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할 것이다.

5) 강정화·황의열 편, 2016,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 최석기 외 역, 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6, 보고서.

6) 박찬모, 2015, 『일제 강점기 지리산유람록에 대한 시론적 고찰』, 『남명학연구』 4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7) 김미선, 2018,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 김택술과 『후창집』 소재 일기

김택술의 본관은 부안(扶安)이며, 자는 중현(鍾賢), 호는 후창(後滄)이다. 1884년 6월 6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저명한 유학자 간재 전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후창’이라는 호는 간재 전우가 주자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지어준 것이다. 간재 전우 사후 동문인 석농(石農) 오진영(吳震泳, 1868~1944)이 『간재사고(艮齋私稿)』 간행을 추진하자 이를 성토했다. 일제하에서 문집을 내지 말라는 선생의 유지를 지키고자 한 것이었다. 전통적인 유학자로서 후학 교육에 힘썼으며, 1954년 2월 18일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읍의 창동서원(滄東書院)에 배향되었다.

김택술의 문집 『후창집』은 본집 31권 15책, 속집 11권 5책, 합 42권 2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55년 아들 김형관(金炯觀)과 문인들에 의해 석인본으로 간행되었다.⁸⁾ 권1~12에 서(書) 536편이, 권13~19에 잡저(雜著) 101편이 실려 있는 등 방대한 산문이 수록되어 있고, 한시도 약 1,500수에 이른다. 8편의 일기는 이중 잡저 하위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문집에 수록된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후창집』 소재 김택술의 일기

순번	일기명	일기 기간	분류	수록 내용
1	진영화사일완행일기(震泳禍士日完行日記)	1925년 6월 2일~12월 12일	사건일기	- 스승인 간재 전우의 문집을 오진영이 간행하는 것에 반대한 일로 인해 전주 검사국의 조사를 받은 일을 기록.
2	금화집지록(金華執贊錄)	1900년 윤8월 16일~11월 20일	강학일기	- 간재 전우를 찾아가 사제의 예를 행한 일을 기록.
3	신문화록(莘門話錄)	1903년 9월 22일	강학일기	- 간재 전우와 국사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눈 일을 기록.
4	배면암최찬정일록(拜勉菴崔贊政日錄)	1902년 9월 18일~21일	강학일기	- 면암 최익현을 찾아가 문답을 나누고 돌아온 일을 기록.

8) 1988년에 여강출판사에서 영인본을, 2021~2023년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번역본을 출간하였다.(김택술, 1988, 『後滄集』, 여강출판사 ; 김택술 저/황갑연 외 역, 2021~2023, 『후창집』 1~8,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호남국학종합 DB(<http://db.hiks.or.kr/>)’에는 국역과 원문이 탑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강출판사의 영인본과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번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번역을 따르되 문맥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순번	일기명	일기 기간	분류	수록 내용
5	화도산양록 (華島山樑錄)	1922년 7월 3일~9월 18일	장례일기	- 간재 전우가 위독하다는 것을 듣고 부안 계화도에 찾아가 임종을 지키 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기록.
6	화양동유록 (華陽洞遊錄)	1922년 3월	기행일기	- 호남 유림 대표로 추대되어 화양동 에 다녀온 일을 기록.
7	금강산유록 (金剛山遊錄)	1930년 3월 30일~5월 3일	기행일기	-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일기 내에 김택술의 한시 19수, 묘 소에 고하는 글 1편이 수록됨.
8	두류산유록 (頭流山遊錄)	1934년 3월 19일~4월 7일	기행일기	-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 - 일기 내에 김택술의 한시 14수가 수 록됨.

위의 1번 <진영화사일완행일기>는 『후창집』 권14에 수록되어 있다. 권14에는 간재 전우의 문집 『간재사고』 간행과 관련한 갈등 속에서 작성된 여러 글, 다른 문집에 대해 의론한 글 등 문집 관련 글이 수록되어 있다. <진영화사일완행일기>의 제목을 번역하면 ‘오진영이 사람에게 재앙을 끼쳤을 때의 완행일기’가 된다. 오진영이 사람에게 재앙을 끼쳤다는 것은 간재 전우의 유지를 어기고 문집을 간행한 것을 의미한다. 일제하에서의 문집 간행을 반대한 김택술은 ‘배일당(排日黨)’으로 몰려 전주 검사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일기는 당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2번 <금화집지록>부터 8번 <두류산유록>까지는 『후창집』 권17에 수록되어 있다. 권17에는 이 7편만이 수록되어 있어, 문집을 편찬한 사람들이 김택술이 남긴 일기를 한 곳에 모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일기들은 각각 한 가지 경험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또 강학일기 3편, 장례일기 1편, 기행일기 3편으로, 내용적으로도 다양하다.

김택술의 스승인 간재 전우, 김택술이 만나 문답을 나눴던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 1833~1906)은 한말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금화집지록>을 통해 간재 전우를 처음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는 과정을, <신문화록>·<매면암최찬정일록>을 통해 당대 대표적 유학자들과의 문답을 볼 수 있다. 또 간재 전우의 임종과 장례 과정을 기록한 장례일기 <화도산양록>을 통해 당대 장례의 절차 및 장례 과정에서의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기행일기의 경우 <화양동유록>에는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자취가 남은 화양동 곳곳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담겨 있다. <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에는 여행 준비부터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풍성하게 기

록되어 있으며, 일기 내에 김택술이 남긴 19수와 14수의 한시를 담고 있어 여행 중의 한시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명승지의 변화된 풍경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3. 김택술 일기의 내용적 특징

1) 스승 간재 전우 관련한 여러 경험

간재 전우는 한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등에서 폭넓게 강학 활동을 하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 속에 간재 전우는 옛 전통을 지키고자 하였고, 말년에 육지와 떨어진 섬에서 생활하며 현실과 거리를 두고 유학의 가치를 고수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유학의 가치가 현대에 이어지게 하였다. 간재 전우의 사상이 조선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은 문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⁹⁾

김택술은 1900년에 전북 변산으로 간재 전우를 찾아가 사제의 예를 행하였다. 이때는 전우가 성리설을 집중적으로 집필하기 시작하던 시기로, 김택술은 전우의 성리설을 체계적으로 배웠고 1908년에는 문고(文稿)를 산정(刪定)하는 일에도 참여하였다. 김택술은 간재 전우의 후반기 고제(高弟), 즉 학식과 품행이 우수한 제자라 할 수 있다.¹⁰⁾

『후창집』 소재 김택술의 일기 8편을 살펴본 결과, 스승인 간재 전우와 관련한 여러 경험을 담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표 1>의 문집 수록 순서로 보았을 때 1번 <진영화사일완행일기>, 2번 <금화집지록>, 3번 <신문화록>, 5번 <화도산양록>은 간재 전우가 일기의 핵심이다. <진영화사일완행일기>는 간재 전우 사후 전우의 문집 간행과 관련한 일을 담고 있고, <금화집지록>은 간재 전우를 처음 찾아가 사제의 예를 행한 일을 담고 있다. <신문화록>은 간재 전우와 대화를 나눈 일을 담고 있고, <화도산양록>은 간재 전우의 임종과 장례 과정을 자세히 담고 있다.

9) 간재 전우에 대해서는 이천승의 논문을 참조하였다.(이천승, 2016, 『간재 전우의 자존의식과 강학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 63, 한국유교학회, 59-84쪽)

10) 간재 전우와 김택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근호의 논문을 참조하였다.(김근호, 2022, 『후창 김택술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한국공자학회, 213-241쪽)

부안에 이르러 선생이 있는 곳을 탐문한 다음 변산의 월명암(月明菴)에 도착하여 명함을 들이고 재배하였다. 강록(講錄)에 참여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정주교질장(周鄭交質章)을 강(講)하였는데 선생이 강록을 보고는 다시 성명을 살펴보았다. 그때 응강(應講)한 사람이 많아 이미 한밤중에 이르렀다.

다음 날 아침에 선생이, “어제 『춘추좌씨전』을 외운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기에 내가 자리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선생이 말하기를, “시문(時文)은 무익하니 실학(實學)에 힘써야 하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비유함에 자상해 마지않아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도(道)를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였다. 얼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자 선생이 만류하여 하루를 더 머물렀다. 돌아가겠다고 아뢰는 때에 선생이 말하기를, “이곳에서 그대의 집까지는 거리가 조금 멀지만 내가 곽임중(郭林宗)이 모용(茅容)을 방문한 고사에 따라 오로지 그대의 집에 가겠네.” 하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감격하였다.¹¹⁾

위는 <금화집지록> 중 일부로, 간재 전우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록한 것이다. 1900년 여름에 김택술의 아버지 김낙진(金洛進)은 김택술을 불러 간재 전우의 도덕과 학문이 세상의 추앙을 받는다고 하면서 천안 금곡으로 찾아가 스승으로 섬기라고 하였다. 예복이 완성되지 않아 출발하지 못하였는데, 윤8월 16일에 다시 김택술의 아버지는 간재 전우가 부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빨리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자란 김택술은 가까운 전북 부안으로 간재 전우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과정을 위의 일기를 통해 볼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간재 전우를 뵈는 첫날 김택술은 『춘추좌씨전』을 외우고, 다음날 전우는 김택술을 불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김택술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간재 전우는 후한의 곽태(郭泰)가 효자인 모용의 집에 유숙했던 고사를 들어, 김택술의 집에 따라 가겠다고 하였다.

실제 이어진 일기를 보면 간재 전우는 김택술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이때

11) 金澤述, <金華執贄錄>, 『後滄集』 卷17, “至扶安, 探問先生所在, 轉到邊山月明菴, 納刺再拜. 參講錄, 講左傳周鄭交質章, 先生觀講錄, 更詳姓名. 時應講者衆, 已至夜分. 翼朝, 先生曰, 昨誦左傳者誰也, 澤述進跪席前. 先生爲說, 時文無益, 實學可勉, 百端引喻, 諄諄不已, 使人自然有向道心. 已而辭退, 先生挽之, 復留一日. 告歸時, 先生曰, 此距君家雖稍遠, 吾用郭林宗訪茅容故事, 專到君家矣. 余聞甚感激.”

따라온 사람이 30~40명에 이르렀다. 그리고 김택술은 10월 11일에 길을 떠나 17일에 금곡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집지(執贄)하는 예를 행하였다. 김택술이 금곡으로 올라갈 때 김택술의 아버지는 간재 전우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11월 20일에 김택술이 집으로 돌아갈 때 전우는 김택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일부만 일기에 담겨 있는데, 간재 전우가 만년에 준수한 선비를 만났다고 김택술을 칭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1900년에 김택술은 간재 전우를 처음 만나 스승으로 섬겼으며, 22년 후인 1922년에 간재 전우는 세상을 떠났다. 간재 전우가 임종할 때 김택술은 그 옆에 있었으며,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일기 <화도산양록>에 담았다.

오전에 화도(華島)에서 급한 전보가 왔는데 선생이 병들었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고 염려되어 아우 김억술(金億述) 및 조제원(趙濟元)과 길을 떠났다. 이기환(李起煥)도 소식을 듣고 현암(玄巖)에서 여기로 와서 동행하여 급히 창북점(滄北店)에 도착하였다. 김중호(金鍾昊)·김중섬(金鍾暹)·김귀락(金龜洛) 등과 선생의 손자인 전일순(田鎰純)도 모두 소식을 듣고 도착하였다. 해가 이미 저물고 조수가 아직 물러나지 않았기에 저녁밥을 먹은 뒤에 바다를 건너 강사(講舍)에 당도하였다. 선생은 병세가 대단히 위중하여 말소리를 못 내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그제 병을 얻었을 때부터 이미 그러하였다고 한다.

김영익(金永益)이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께서 10여 일 전부터 노형(老兄)이 오기를 바라지 않은 날이 없어서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어 오기를 재촉하게 하였으나, 그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이렇게 늦게 도착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몹시 안타까웠다. 선생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보고 싶은 생각에 이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큰소리로 “김택술이가 왔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전연 알아보지 못했다. 증세가 더욱 위중해져 바야흐로 변고를 기다리던 때에는 병구완을 하는 자가 몇 사람도 없다가 나의 일행이 들어오게 되자 겨우 고단(孤單)함을 면하였다. 의원이 와서 청서육화탕(淸暑六和湯)과 귀용탕(歸茸湯) 각 1첩을 썼으나 모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¹²⁾

<화도산양록>은 1922년 7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의 인용문은 <화도산양록>에 기록된 첫날인 1922년 7월 3일 일기의 전체이다. 일기는 간재 전우가 병들었다는 전보를 받는 것에서 시작되며, 당시 전우가 머물러 있던 ‘화도(華島)’는 전북 부안의 계화도(界火島)이다. 간재 전우는 계화도에 머물며 강사의 이름을 ‘계화재(繼華齋)’라고 하였고, 후인들은 섬을 ‘계화도(繼華島)’라고 불렀다.¹³⁾ 김택술도 간재 전우가 쓴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계’를 생략하고 ‘화도(華島)’라고만 기록하였다. 전보를 받고 바로 길을 떠나 그날 계화도에 도착하였으며, 이때에는 전우의 병세가 매우 위중하여 말도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음날인 1922년 7월 4일 유시(酉時, 17~19시)에 간재 전우는 사망하였고, 임종을 모신 자손과 문인은 모두 49명이었다. 부고를 보내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이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후 9월 11일에 발인(發引)하여 바다를 건너고, 13일에 하관(下棺), 9월 16일에 삼우제, 9월 17일에 졸곡제를 지낸 것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9월 18일에 부제를 지낸 사실을 간략히 기록한 후, 간재 전우가 기존에 꾸었던 꿈과 금년에 계화도 강당 앞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지 않은 것이 선생의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김택술이 남긴 일기를 통해 간재 전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까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간재 전우 사후 김택술이 유람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에도 전우는 등장하여, 김택술이 평생 스승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택술의 8편의 일기 중 유람을 기록한 것은 3편이다. 1922년 3월의 화양동 유람을 기록한 <화양동유록>은 간재 전우가 살아있을 때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고, 1930년 4~5월의 금강산 유람을 기록한 <금강산유록>, 1934년 3~4월의 지리산 유람을 기록한 <두류산유록>은 전우 사후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금강산을 유람하던 1930년 4월 25일 명연폭포를 구경할 때 일행이 간재 전우가 지었다는 7언절구의 시를 읊었다. 김택술은 이 시를 듣지는 못하였으나 선생

12) 金澤述, <華島山樑錄>, 『後滄集』 卷17, “午前, 自華島有急電, 乃先生病報也. 聞甚驚慮, 與弟億述及趙濟元發程. 李起煥亦聞報, 自玄巖到此同行, 急到滄北店. 金鍾吳鍾遲金龜洛等先生孫鎰純, 亦皆聞報而到. 日已夕而潮未退矣, 夕飯後, 涉海抵講舍. 先生病勢, 萬分危重, 失語音不省人, 自再昨日得疾時已然云. 金永益謂澤述曰, 先生自十數日來, 無日不望老兄之來至, 使諸生專書促來, 而書未及達, 致此晚到可歎. 澤述聞甚大恨. 未知先生所欲教者何事, 而思見至此. 因大聲告曰, 金澤述來矣, 全不省. 證益重, 方在待變中時, 侍疾者無幾人, 至是澤述一行入來, 乃免孤單. 醫來用清暑六和湯歸茸湯各一貼, 并未奏效.”

13) 계화도에 대해서는 이천승의 논문을 참조하였다.(이천승, 2016, 『간재 전우의 자존의식과 강학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 63, 한국유교학회, 68쪽, 각주 11)

이 젊었을 때 이 산을 유람했으니 그때 지었을 것이며, 아직 젊었을 때 지어 지극히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고(詩稿)에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과 전우의 시를 일기에 정확히 기록하여 잊지 않으려고 하였다.

지난 갑진년(1904)에 선사(先師)를 모시고 남원에 도착하여 열흘 동안 머물렀는데 이 산의 입구와의 거리는 100리여서 가까웠다. 병암(炳菴) 김준영(金駿榮) 어른이 산행(山行)을 가면서 나에게 따라가기를 요구하였는데 선사가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번 산행은 나 역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 다만 국상(國喪)을 당하여 상복을 입은 몸으로 산을 유람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훗날에 도모하세. 그대는 그때에 나와 동행하는 것이 좋겠으니 지금 객지 여관에서 그대를 놓치면 좌우 손을 잃는 것과 같기에 이렇게 만류하는 것이네.”라고 하였다.

대저 누가 알았겠는가, 세상일은 예측하기 어려워 이듬해에 오적(五賊)이 나라를 팔아먹은 변고가 있었고 경술년(1910)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며 선사가 이미 섬에 들어가 자정(自靖)하여 임술년(1922)에 세상을 떠날 줄을……. 지난 세월을 돌아보매 서글픈 마음이 끝이 없는데 이 산에 가자고 약속했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¹⁴⁾

위는 <두류산유록> 첫부분 기록의 일부이다. 보통 유람을 일기로 기록할 때, 유람 지역이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연유로 유람을 떠나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날짜별로 유람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김택술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시작하는데, 먼저 ‘두류산’이 ‘지리산’의 이칭임을 언급하며 지리산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과 같이 유람의 연유를 서술하는데, 거기에 간재 전우가 등장한다. 인용문에 나온 ‘선사(先師)’, 즉 돌아가신 스승이 바로 간재 전우로, 1904년에 전우를 모시고 남원에 머물렀을 때 전우의 만류로 지리산 유람을 못하고 함께 훗날을 도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나라가 망하고, 전우가 세상을 떠나 지리산 유람을 하지 못하였고, 함

14) 金澤述, <頭流山遊錄>, 『後滄集』 卷17, “往在甲辰陪先師, 到南原地, 留止旬日, 距此山初頭百里而近. 炳菴 金丈【駿榮】作此山行, 要余隨之, 先師止之曰, 此行, 吾亦有意, 但以國恤受衰之身, 遊山未安, 待後圖之, 君可於其時同余, 今於旅次舍君, 則如失左右手, 以此止之. 夫孰知, 世事難測, 翌年有五賊賣國之變, 至於庚戌宗社永覆, 先師則早已入島自靖而考終於壬戌之歲乎. 俯仰今昔, 感愴罔涯, 而此山之約, 言猶在耳.”

께 지리산에 가자고 했던 스승의 말씀이 귓가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시국과 미시적 삶

일기는 당대의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당대 현실을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 일기에 기록하기도 하고,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는 과정 중 당대의 모습이 자연스레 담기기도 한다. 김택술은 1884년에 태어나 1954년에 사망하여, 그의 생애에 일제강점기가 있었으며, 8편의 일기 안에도 일제강점기의 시국과 당대 사람들의 미시적인 삶이 다양하게 담겨 있었다.

<화도산양록>은 앞서 언급했듯이 1922년 7~9월 간재 전우의 임종과 장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이다. 당시 장례 과정을 자세하게 담고 있으며, 유교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되 일제하라서 고민해야 했던 부분도 볼 수 있다.

이날부터 비로소 장례 도구를 준비하고 여러 사람이 서로 예서(禮書)의 장례와 우제(虞祭) 의절(儀節)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선생에게 전배(前配)와 후배(後配)가 있었는데 세 분[三位]을 합장하라는 것은 선생의 유훈(遺訓)이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날에 연기(燕岐)에 있는 두 분의 묘소를 천봉(遷奉)하여 합봉(合封)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그러나 문득 이번 장례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따져 물을 우려가 없지 않기에 적합하지 않고, 또 저들의 법에 저촉되면 하나의 일이 생겨나기에 추후에 합봉(合封)하는 것이 온당하였다. 다만 광중(壙中)을 팔 때에 회격(灰隔)을 넓게 만들어 세 분을 수용할 수 있게 하여 뒷일을 대비하기로 하였다.¹⁵⁾

위는 <화도산양록> 1922년 7월 22일 일기의 전체이다. 간재 전우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전우는 자신이 사망하면 두 아내와 합장을 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저들[彼]’이 따져 물을 우려가 있고, ‘저들’의 법에 저촉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후 합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후에 합봉할 때 세 명을

15) 金澤述, <華島山樑錄>, 『後滄集』 卷17, “自是日始治葬具, 諸人相與看詳禮書葬虞儀節. 先生有前後二配, 三位合窆, 遺訓也. 議於襄窆日, 遷奉燕岐所在二位墓合封, 而旋以今此襄奉, 尚不無彼詰之慮不宜, 又抵彼法, 生出一事, 追後合封爲穩. 但於穿壙時, 闊作灰隔, 可容三位, 以備後事.”

수용할 수 있게, 관(棺)의 주위에 석회(石灰)를 채워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드는 것인 ‘회격(灰隔)’을 넓게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저들’은 일제라 할 수 있다. 바로 합봉을 못한 것은 일제의 방해로 받지 않고 장례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간재 전우는 당대의 유명한 학자로 <화도산양록>을 통해 보면 당시 조문하는 사람이 많았고, 제문은 더욱 많아 이루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신체를 훼손한 사람’의 부조는 간재 전우의 평소 가르침에 따라 물리쳤다는 것이 1922년 9월 7일 일기에 나온다. 여기에서 신체를 훼손한 사람은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짧게 깎은 사람, 즉 단발령을 따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화도산양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장례 때의 세세한 일화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송기창(宋基滄) 아이가 뒤따라 도착하여 나를 놀라게 하며 감동시켰다. 이 아이는 올 해 나이가 15세인데 어제 가벼운 병세가 있어 밤에 서재에 오지 못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일을 듣고는 밥상을 대하고서도 먹지 않은 채 목이 메도록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 스승의 지조(志操)는 내가 이미 적이 알고 있는데, 오늘 행차에 만약 치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연코 목숨을 버리실 것이니, 우리 스승께서는 아마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셨을 것이다.” 하였다. 결국에는 소매가 넓은 옷과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서 홀로 길에 오르며 말하기를, “나는 우리 스승과 진퇴를 함께 할 것이다.” 하고서 험난한 백 리 길을 걸어 칠후 같은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쓰며 두 끼니를 먹지도 못한 채 슬픔과 근심으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기특하구나.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스승을 존경하는 정성이 어찌면 그렇게도 도타운 것인가.” 하였다. 아울러 나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어떤 가르침을 펴서 이렇듯 감동해서 따르게 하였습니까?” 하니, 이에 대해선 부끄럽기만 하였다.¹⁶⁾

16) 金澤述, <震泳禍士日完行日記>, 『後滄集』卷14, “又宋童基滄隨到, 令人驚感. 此童今年十五, 昨有微恙, 夜不到齋, 至朝始聞吾事, 對案不食, 失聲痛哭曰, 吾師志操, 吾已竊聞矣, 今行若不免遭辱, 必然舍生, 吾師殆已逝矣. 遂以廣袖泥鞋, 隻行登道曰, 吾當與吾師同進退. 間關百里, 黑夜抵此. 其扶病觸寒, 二頓不食, 悲憂瘦瘠之狀, 人皆嘖嘖嘆賞曰, 異哉, 此子幼齡, 尊師之誠, 何其篤也. 并賀於余曰, 行何教術而致此感服. 是則可愧也.”

<화도산양록>에서 일제강점기 시국은 장례를 치를 때 부수적인 상황으로 등장한다. 이에 반해 <진영화사일완행일기>는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일이 핵심적으로 등장한다. 간재 전우의 또 다른 제자인 오진영은 자신의 제자인 강태걸을 시켜 간재 전우 사후 문집을 간행하였고, 일제하에서의 문집 간행을 반대한 김택술은 이에 대한 통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에 오진영은 강태걸을 시켜 김택술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김택술은 전주 검사국으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1925년에 전주 검사국으로 가 조사를 받은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진영화사일완행일기>이다.

위의 인용문은 <진영화사일완행일기> 후반부의 일부이다. 전반부에는 1925년 6월 검사국에서 검사와 대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11월 27일에 전주 검사국의 호출을 다시 받고, 12월에 순사가 정읍의 만종서재(萬宗書齋)로 김택술을 찾아와, 고생하며 전주로 향해 다시 조사를 받는 게 기록된다. 위의 인용문은 조사를 마친 후, 허둥지둥 자신을 찾아 전주까지 온 제자 송기창에 대해 기록한 부분이다. 일제로 인해 고초를 겪는 상황 속, 스승을 찾아 끼니도 거르고 겨울 길을 달려오며 마음을 다하는 제자의 세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택술의 <화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은 각각 1922년, 1930년, 1934년의 유람을 담은 것이다. 김택술은 유람을 주로 기록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대의 시국이 자연스럽게 담긴다. 한 예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외국인들도 한반도에 들어왔고,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에 대한 기록을 <두류산유록>에서 볼 수 있다.

또 북쪽으로 20리를 가서 수월치(水越峙)를 넘어 미국인의 피서실(避暑室)에 당도하였다. 집이 50여 곳이나 되고 돌로 지어서 외부는 견고하고 내부는 화려한데, 높고 크며 매우 험한 곳에 이처럼 집을 지었으니 많은 돈이 들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말로는 미국은 돈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듯하다. 산 위의 형국은 산봉우리가 수려하고 시야가 확 트였으며 돌 사이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저울로 달아보면 그 무게가 다른 물과 비교할 바가 아니며 그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한다. 대저 누가 이곳에 이렇게 좋은 터가 있는 줄을 알았겠는가. 또한 미국인들에게도 감역술(堪輿術 풍수지리술)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매우 더울 때에 왔다가 더위가 물러가면 떠나는데, 여름철에는 문득 변화한 곳이 되며 골짜기에 사는

곤궁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용이 되어 작은 돈이라도 받게 됨을 기뻐한다고 하니, 우리 망국 백성들의 가련함이 슬프다.¹⁷⁾

위는 <두류산유록> 1934년 4월 4일 일기의 일부이다. 지리산 인근에서 미국인의 피서실을 보게 된 김택술은 그 건물의 화려함을 묘사하고, 미국이 돈이 많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여름 한철에만 이곳에 머무는데, 곤궁한 백성들이 여름철에 고용되어 작은 돈이라도 벌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듣고 망국 백성들의 가련함에 슬퍼한다. 유람 중 보게 된 것을 일기 속에 담아, 일제강점기 미국인이 들어온 상황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3) 명승 유람과 시적 형상화

김택술의 일기 8편 중 3편, 곧 <화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은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편수로는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기의 분량은 이 3편이 다른 5편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다.¹⁸⁾ 김택술이 유람한 지역은 충북 괴산군의 화양동, 강원도의 금강산, 호남과 영남에 위치한 지리산이다. 화양동은 우암 송시열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으로, 송시열 사후에 만동묘(萬東廟)와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세워진 의미 있는 곳이다. 금강산·지리산은 한라산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으로 일컬어진 곳으로, 우리나라 산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곳이라 할 수 있다. 기행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명승지를 살핀 연구에 의하면 산별 기행일기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 금강산,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지리산이었다.¹⁹⁾ 김택술은 이렇게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찾았던 산을 일제강점기 때 찾고, 풍부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17) 金澤述, <頭流山遊錄>, 『後滄集』 卷17, “又北行二十里, 踰水越峙, 抵美國人避暑室. 室爲五十餘所, 築之用石, 外固內麗, 而高大絕險處, 築室如此, 可想費得許多金. 人道美國多金, 信然矣. 山上開局, 岡巒秀麗, 眼界通豁, 泉出石間, 權之以稱, 其重非比他水, 服之消百病云. 夫孰知此地有此好基址. 亦可見美人之有堪輿術也. 來以極暑, 暑退則去, 夏節便作繁華地, 峽中窮民, 爲其雇傭, 喜得些金, 哀我亡國遺黎之可憐也.”

18) 『후창집』은 1면이 12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기별 면수는 다음과 같다. <진영화사 일완행일기> 약 8면, <금화집지록> 약 2면, <신문화록> 약 2면, <배면암취찬정일록> 1면, <화도산양록> 11면, <화양동유록> 약 4면, <금강산유록> 32면, <두류산유록> 약 14면.

19) 김미선, 2020,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125쪽.

화양동(華陽洞)은 청주(淸州)의 동쪽 80리【지금은 괴산(槐山) 지역이 되었다.】에 있는데 수석(水石)의 빼어나함이 나라 안에 알려졌다. 수석이 참으로 빼어나지만 명성이 이처럼 자자한 것은, 대개 만동묘(萬東廟)가 이곳에 있고 우암(尤菴) 선생의 유적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한 번 유람하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미처 그럴 겨를이 없었다. 임술년(1922) 3월에 호남의 유림에서 나를 대표인으로 추대해 만동묘의 향사(享祀) 여부를 가서 보게 되었다.

<중략>

화양동의 수석에는 무릇 구곡(九曲)이 있는데, 모두 우옹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화양동 입구에 들어가 먼저 경천벽(擎天壁)에 이르렀는데, 석벽이 수십 장(丈)이나 깎아지른 듯이 선 모양이 마치 손바닥을 편 것과 같아서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 시내를 거슬러 20리쯤 올라가서 운영담(雲影潭)에 이르렀는데, 암석이 기괴하고 우뚝하여 물에 거꾸로 비친 모양이 구름 그림자와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수십 보를 올라가 읍궁암(泣弓巖)에 이르렀는데, 우옹이 효종(孝宗)의 기일(忌日)을 당할 때마다 이 바위에서 통곡하고 형호(荊湖)의 고사를 인용하여 ‘읍궁’으로 이름을 지었다. 작은 빗돌에 우암 선생의 시를 새겨 놓았는데 시는 다음과 같다.

此日知何日	이날이 무슨 날이던가
孤衷上帝臨	외로운 충정을 상제가 굽어보리라
侵晨痛哭後	이른 새벽에 통곡하고 나서
抱膝更長吟	무릎 안고 다시 길게 읊노라

바위의 10여 곳이 자연스레 움푹 파였는데 점점이 눈물을 떨군 흔적과 같아 기이하니, 그 당시 이 바위에서 곡할 때에 혹 이것에서 이름을 취한 것일까?20)

20) 金澤述, <華陽洞遊錄>, 『後滄集』 卷17, “華陽洞在淸州東八十里【今爲槐山地】，水石之勝，聞于國中。水石固勝矣，名若是藉藉者，蓋以萬東廟在此也，尤菴遺蹟在此也。是所願一遊者，而未暇及焉。壬戌三月，自湖南儒林，推余爲代表人，往觀萬東廟享祀與否。<중략> 洞之水石，凡有九曲，皆經尤翁命名。入洞口，先得擎天壁，石壁削立數十丈如人開掌，故得是名。溯流上二里許，得雲影潭，巖石奇怪崔嵬，倒水若雲影故名。上數十步，得泣弓巖，尤翁每當孝廟諱辰，痛哭此巖，引荊湖故事，名以泣弓。有小碑刻尤菴詩，詩曰，此日知何日，孤衷上帝臨，侵晨痛哭後，抱膝更長吟。巖上十餘處，天然成坎，點點若落淚

위는 <화양동유록> 전반부의 일부이다. 일기의 첫 부분에서 김택술은 화양동이 어떤 곳이며 어떠한 이유로 찾게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화양동은 수석이 빼어난 곳이며 송시열의 유적이 있는 곳으로, 김택술이 가고 싶어 하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1922년 3월에 호남 유림의 추대로 만동묘의 향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화양동을 찾게 되었다.

인용문의 중략한 부분에서 김택술은 차와 도보로 화양동을 찾아가고, 1918년 이후로 일제의 규제 때문에 향사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향사는 폐지되었지만 우암 송시열의 사당과 수석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김택술은 송시열의 사당과 묘소를 찾는다. 그리고 이후 인용문의 중략한 다음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화양동의 구곡을 유람하게 되고, 풍경 하나하나를 묘사한다. 인용문 부분에는 구곡(九曲) 중 경천벽, 운영담, 읍궁암에 대한 유람이 담겨 있으며, 읍궁암에 대해서는 우암 송시열이 효종의 기일에 바위에서 올랐다는 일화와 빗돌에 새겨진 우암의 시도 일기에 수록하였다. 인용문 이후 부분에는 금사담(金沙潭), 첨성대(瞻星臺), 능운대(凌雲臺), 와룡암(臥龍巖), 학소대(鶴巢臺), 파곶(巴串)에 대한 유람이 담겨 있고, 구곡 전체를 종합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화양동 유람은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읍궁암>과 <암서재>시에 차운하였다는 서술은 있지만 일기 내에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²¹⁾ 이후 1930년의 금강산 유람, 1934년의 지리산 유람은 넓은 공간에 대한 유람이라서 유람 기간이 길며, 일기 내에 다수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금강산유록>과 <두류산유록> 모두 첫 부분에서는 유람 지역과 유람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후 날짜별로 경험이 기록되어 있다. 유람 중 시를 지은 경우 일기 속에 수록하여, 김택술의 시가 <금강산유록>에는 19수, <두류산유록>에는 14수 수록되어 있다. <금강산유록>에는 유람 중 일행이 읊은 간재 전우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한다.

날이 저물기 전에 장안사(長安寺) 어귀에 당도하였다. 집에서 천여 리나 떨어져 있지만 연로(沿路)의 급행차를 탔기에 이처럼 빨랐던 것이다. 철원(鐵原) 이전에는 기차를 이용하였고 이후에는 전차를 이용하였으며 말회리(末輝里)부터는 자동차를 이용하였다. 장안사에 10리 못미처 이미 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는 차 안에서 다음과

痕, 可異也, 當日之哭於此巖, 或取於此歟.”

21) 이 때 지은 한시는 김택술의 시가 편찬된 『후창집』 권26에 수록되어 있다.

같이 시를 지었다.

未到山中眼忽明	산속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이 번쩍 뜨이니
已覺群峯玉刪成	산봉우리들을 옥 깎아 만든 걸 이미 알았네
行行漸入眞佳境	가면 갈수록 점점 참으로 멋진 곳에 들어가니
一步移時一換形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번씩 모습을 바꾸네 ²²⁾

김택술은 1930년 3월에 금강산 유람을 계획하였으나 비로 인해 일정을 미루고 4월 23일에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4월 24일 장안사에 도착하게 되며,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유람 과정을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위는 <금강산유록> 1930년 4월 24일 일기의 전반부이다. 전날 전북 정읍에서 길을 떠났던 김택술은 기차·전차·자동차를 이용하여 하루 만에 금강산 장안사 어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차 안에서 멀리 바라보게 되는 산의 형세에 감탄하며, 금강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눈이 번쩍 뜨인다고 시로 표현함을 볼 수 있다. 이날 김택술은 여관에 유숙한 후 밤에, 금강산에 와서 유숙하니 마음먹은 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7언절구 1수를 더 지어 일기에 수록하였다.

이후 김택술은 금강산을 유람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감흥이 올라오면 시를 지었다. 특히 금강산의 여러 유람 지점에 대한 서술과 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30년 4월 25일 망군대, 정양사, 표훈사, 4월 26일 만폭동, 진주담, 4월 27일 유점사, 삼일포, 4월 28일 해금강, 4월 29일 비룡폭포, 구룡연폭포, 5월 1일 만물상, 5월 2일 비로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진주담 위에 새겨 놓은 옛 시 “맑은 시내와 흰 돌은 취향이 같으나 갠 달과 맑은 바람은 별도로 전하리.[清溪白石聊同趣 霽月光風更別傳]”와 “세상 밖에서 지금 질탕함을 이루었으니 인간세상 어디인들 시끄럽지 않겠는가.[物外只今成跌宕 人間何處不啾喧]”라는 두 연(聯)은 우옹(尤翁)의 글씨인데, 심획(心畵)을 어루만지니 완전히 어제 일과 같았다.

대개 우옹(尤翁)이 이 산을 유람한 것은 만년(晩年)이었으니, 이에 상상전대 그 당시는 비록 청란(淸亂 병자호란)을 겪은 뒤였지만 오

22) 金澤述, <金剛山遊錄>, 『後滄集』 卷17, “未暮, 抵長安寺洞口。距家凡千餘里, 而乘沿路急車, 故若是其迅也。鐵原以前用汽, 以後用電, 自木輝里用自動。未及長安十里, 已覺山形非常, 車中有詩曰, 未到山中眼忽明, 已覺群峯玉刪成, 行行漸入眞佳境, 一步移時一換形。”

히려 나라를 스스로 보전하여 사방의 국경이 전란을 겪지 않았는데,
더구나 세상 밖에 뛰어난 이 산의 맑고 빼어난 것이 어찌 반점(半點)
의 티끌이라도 용납하였겠는가. 선생이 쓴 것은 바로 실체에 딱 들
어맞았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여 삼천리 온 강토에 다른 종족[異類]들이 가
득하고 이러한 깊은 산에도 오랑캐들이 즐비하니, 산천도 참으로 모
습을 바꾸었다. 개탄을 금치 못하고 ‘전환(傳喧)’ 두 글자를 사용하여
절구시 한 수를 지었으니, 시는 다음과 같다.

金剛絕勝六洲最	금강산의 빼어남은 육대주에 최고요
尤老風聲百世傳	우로의 명성은 백대까지 전해지네
當日清遊物外地	당시 세상 밖에서 맑게 노닐던 곳이
如今誰識雜啾喧	지금처럼 시끄러울 줄 누가 알았으리 ²³⁾

위는 그중 1930년 4월 26일 진주담에 대한 시가 있는 부분을 예로 든 것이
다. 진주담 위에 새겨 놓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를 보고 김택술은 이를 어루만
지며, 송시열이 이곳을 유람했던 때를 상상한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여 깊은
산에도 오랑캐가 즐비한 현실을 개탄하고 송시열 시의 두 글자로 시를 지었다.
빼어난 금강산, 우암 송시열의 명성, 당시와는 달라진 현실에 대한 개탄이 7언
절구 속에 압축되어 있다.

김택술은 금강산 유람을 다녀오고 4년 후인 1934년 지리산 유람을 떠나게
된다. 3월 19일에 지리산을 향해 출발하며, 3월 20~21일에 순창, 3월 22~27일
에 남원에 머무르는 등 지리산을 향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머무르며 때로는
시를 짓기도 한다. 그리고 3월 28일에 지리산에 들어가기 시작, 3월 29일에 천
왕봉에 오르며, 이후 4월 3일에는 쌍계사를 유람하고 청학루와 비석에 새겨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의 비명(碑銘)에 대해 시를 짓기도 하였다. 4
월 5일에 유람 전체를 아우르는 시를 짓고, 금강산과 지리산을 비교하여 서술
하며, 지리산의 형세와 영·호남 사람들의 성품에 대한 논평을 기록하였다. 마

23) 金澤述, <金剛山遊錄>, 『後滄集』 卷17, “眞珠潭上, 有所刻古詩, 清溪白石聊同趣, 霽月
光風更別傳, 物外只今成跌宕, 人間何處不啾喧, 二聯, 尤菴筆也, 摩挲心畫, 宛然若昨日
事. 蓋尤翁之遊此山在晚年, 因想當時雖經清亂之後, 國家尙能自保, 四徼不見兵塵, 而況
此山清絕之超出物外者, 豈容半點塵氛. 先生所筆, 正得著題. 今焉國不爲國, 全疆三千,
異類充斥, 若此深山, 卉蘢如織, 山河眞改色矣. 不勝慨歎. 題一絕韻, 用傳喧二字, 詩曰,
金剛絕勝六洲最, 尤老風聲百世傳. 當日清遊物外地, 如今誰識雜啾喧.”

지막인 4월 6일과 7일의 일기는 포암을 떠나고, 해질 무렵 귀가한 사실만 매우 간략히 기록하였다.

白頭流脉鎮南州	백두산에서 흘러온 맥이 남도를 진압하니
中國衡山可與儔	중국에 있는 형산과 더불어 짝할 만하네
萬壑皆懸銀漢瀑	일만 골짜기에는 은하수 같은 폭포가 걸렸고
千峯高逼玉京樓	일천 봉우리는 높이 옥경루에 닿을 듯하네
精靈幾毓群賢出	신의 정령은 현인들을 얼마나 길러 내었나
深廣多治五穀疇	골짜기는 깊고 넓어 오곡을 지을 논밭이 많네
登覽要知仁智術	등람할 때는 인자·지자의 마음 알아야 하니
看如不看也堪羞	보고도 안 본 것과 같으면 부끄러운 일이네 ²⁴⁾

위는 <두류산유록> 1934년 4월 5일 일기에 수록된 것으로, 지리산 유람 전체를 총괄하는 시이다. 지리산에 대한 평가, 골짜기와 봉우리의 풍경과 상황, 등람자의 마음가짐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금강산 유람 마지막 부분에서도 전체를 총괄하는 시를 짓고, 금강산 전체에 대해 논평하는 서술을 남겼었다. 이러한 총괄하는 시와 서술은 유람 여행 전체를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여행이 마무리됨을 명확하게 보여주어 일기가 완결성을 갖게 한다.

4. 김택술 일기가 갖는 의미

1) 20세기 초반 한문일기의 위상 확인

김택술의 문집에 수록된 일기는 8편으로, 시기적으로 1900년부터 1934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스승 간재 전우와의 만남과 가르침, 당대 유명한 유학자 면암 최익현과의 문답, 간재 전우의 임종과 장례, 간재 전우 사후 문집 간행을 반대하다 검사국의 조사를 받은 일, 명승인 화양동·금강산·지리산 유람 등 다양한 경험을 담고 있다. 더구나 경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간순간 보게 된 것들을 포착하여 당대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24) 金澤述, <頭流山遊錄>, 『後滄集』 卷17.

이날 저녁에 염습(斂襲) 도구를 올렸다. 수의(壽衣)를 일찍이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때를 당해서 늦어지지 않았다. 관(冠)은 위모(委貌)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선을 두른 것이다.】를 사용하고 복건(幅巾)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망건(網巾)은 검은 비단[黑緇]을 사용하였으며, 상의(上衣)는 북포(北布)를 사용하였으며, 심의(深衣)는 북포로 만든 행의(行衣)를 잇대었으며, 과두(裹肚)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옷[襖]과 바지[袴]는 솜을 둔 명주 【설면자(雪綿子)이다.】를 사용하였으며, 한삼(汗衫)·홀바지[單袴] 또한 흰 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요대(腰帶)는 검은 비단을 사용하였으며, 역목(幘目)은 검정색 비단[緇帛]에 붉은색 안감을 사용하였으며, 악수(握手)는 주머니처럼 만들었고 양쪽 끝에 끈이 있으며, 버선[襪]은 솜을 둔 흰 명주 【설면자이다.】를 사용하였으며, 행전(行纏)은 흰 명주를 사용하였고 네 끝에 끈이 있으며, 싸개[冒]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반함(飯含)에 진주를 사용하였고, 뿔비녀[角笄]를 사용하라는 것은 선생이 명한 것이었으나 【뿔비녀는 선생의 선비(先妣) 양씨(梁氏)가 남겨준 물건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소나무비녀[松笄]를 사용하였으니, 이 비녀는 태조 황제가 손수 심은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또한 선생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다. 혼백(魂帛)은 속백(束帛)의 제도를 사용하였으며, 명정(銘旌)에 ‘간재전처사지구(艮齋田處士之柩)’라고 쓴 것은 또한 선생이 평소에 명한 것이지만, ‘구산(臼山)’으로 쓰지 않고 ‘간재(艮齋)’라고 하여 조금 어긋나게 된 것은 대개 갑작스러워 살피지 못해 그러한 것이다.²⁵⁾

위는 <화도산양록> 1922년 7월 4일 일기의 후반부이다. 이날은 간재 전우가 세상을 떠난 날로, 간재 전우의 하직, 간재 전우가 만년에 자손과 문인들에게 했던 말을 기록하고, 유사(有司)를 정해 각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과 같이 염습 도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

25) 金澤述, <華島山樛錄>, 『後滄集』 卷17, “是夕, 進襲. 以壽衣曾已製置, 故不臨時遲緩也. 冠用委貌 【素質黑緣】, 不用幅巾, 網巾用黑緇, 上衣用北布, 深衣承以北布行衣, 裹肚不用, 襖袴用紬有絮 【雪綿子】, 汗衫單袴亦用白紬, 腰帶用黑緇, 幘目用緇帛楨裏, 握手如囊制, 兩端有繫, 襪用白紬有絮 【雪綿子】, 行纏用白紬, 四端有繫, 冒不用, 飯含用眞珠, 用角笄, 乃先生所命 【角笄, 先生先妣梁氏遺物故也.】, 不知所在, 用松笄, 此笄以太祖皇帝手植松作成, 而亦平日所用也. 魂帛用束帛制, 銘旌書之曰, 艮齋 田處士之柩, 亦平日所命, 而但不書臼山而曰艮齋, 此爲少違, 蓋慮遽未審而然也.”

하며, 간재 전우가 사용하라 했으나 찾지 못한 뽕비녀와 관련한 일까지 일기에 남겼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반 장례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한다.

20세기 초반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로, 이 시기는 소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김택술의 일기는 20세기 초반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강학일기, 장례일기, 기행일기 등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정리·연구 성과가 다양하게 있다.²⁶⁾ 김택술 일기는 그러한 글쓰기 전통이 20세기 초반에도 활발하게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20세기는 한문에서 한글로 주요 사용 문자언어가 교체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 교체 시기에도 한문일기는 유학자에 의해 풍부하게 쓰였고, 당대를 담는 중요한 자료임을 김택술 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일제강점기 유학자의 다양한 면모 포착

일제강점기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섬 오랑캐라 여겼던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하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유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일제강점기 당시 유학자들이 어떻게 지냈으며,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를 김택술 일기를 통해 볼 수가 있다. 김택술의 일기 속에는 스승 간재 전우에 대한 존경과 그의 뜻을 지키려한 모습이 담겨 있고, 송시열 등 선인에 대한 경모(敬慕)가 보인다. 유교의 의례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 한 노력이 포착되고, 명승으로 이름난 산수 유람을 꿈꾸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보인다.

식사를 마치고 쓰러져 누웠는데 너무 피곤하여 온몸이 매를 맞은 것

2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2016~2019,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 김미선, 2019,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박동욱, 2020, 「조선시대 임종 장례 일기 연구」, 『한문학논집』 56, 근역한문학회 ; 이상균, 2013,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치영, 2014,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최석기 외 역, 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 최석기 외 역, 2008, 『지리산 유람록 -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사 ; 최석기 외 역, 2009~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6, 보고사 ; 최은주, 2009,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 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등.

같이서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었다. 마침내 스스로 웃으며 말하기를, “심하구나, 너의 산수를 좋아함이여!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였는가? 번거로운 일을 자신이 만들었으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라.”라고 하였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이 시 한 수를 지었다.

誰言壯觀好	누가 장엄한 경관 좋다고 했던가
身苦更無比	몸 고생이야 다시 비할 곳 없네
堪笑靈臺主	우습구나 영대의 주인이여
自求快一時	스스로 한때의 상쾌함 구했구나

이 시는 몸이 마음을 책망한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非求快一時	한때의 상쾌함을 구한 것이 아니라
要見智仁術	지자와 인자의 마음을 보려 하였네
我苟淨私塵	내 진실로 사욕과 먼지 씻어냈으니
從知你亦逸	이에 너 또한 없어진 것을 알겠네

이 시는 마음이 몸에 대답한 것이다.²⁷⁾

김택술은 화양동·금강산·지리산을 유람하였으며, 위는 그중 지리산 유람을 기록한 <두류산유록> 1934년 3월 29일 일기의 후반부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산수 유람을 중요한 공부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산수 유람을 하고 이를 글로 남기는 문화가 발달하였다.²⁸⁾ 집 근처의 산수도 유람하지만, 이름난 산수의 경우 큰마음을 먹고 멀리까지 유람을 떠나게 된다. 김택술도 오랫동안 가고자 마음먹었다가 유람을 떠나게 되며, 금강산·지리산의 경우 산행에 몸이 매우 고단하게 된다. 그때 위와 같이 몸과 마음이 대화하는 시를 짓는다. 시에서 고생한 몸이 한때의 상쾌함을 구했다고 마음을 원망하자, 마음이 이 유람이 ‘지자(智者)’와 ‘인자(仁者)’의 마음을 보려한 것이며, 지리산 유람을 통해 사욕과

27) 金澤述, <頭流山遊錄>, 『後滄集』 卷17, “飯畢頽臥, 德困殊甚, 渾身如經亂打, 不覺有痛聲. 乃自笑曰, 甚哉, 儒之癖於山水也, 孰使儒如此, 累自己作, 復誰怨尤. 因題一詩曰, 誰言壯觀好, 身苦更無比, 堪笑靈臺主, 自求快一時. 此身責心也. 又題曰, 非求快一時, 要見智仁術, 我苟淨私塵, 從知你亦逸. 此心答身也.”

28) 조선시대 산수 유람에 대해서는 김미선의 논문을 참조하였다.(김미선, 2019,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화회, 155-157쪽)

먼지를 씻어 냈다고 답한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산수 유람을 공부의 수단으로 여긴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근현대 전북 유학자 김택술의 일기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서, 김택술 일기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하고 의미를 제시하였다. 김택술의 문집 『후창집』 잡저 하위에 모두 8편의 일기가 수록되어 있다. 스승인 간재 전우의 문집을 오진영이 간행하는 것에 반대한 일로 인해 전주 검사국의 조사를 받은 일을 기록한 <진영화사일완행일기>, 간재 전우를 찾아가 사제의 예를 행한 일을 기록한 <금화집지록>, 간재 전우와 국사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눈 일을 기록한 <신문화록>, 면암 최익현을 찾아가 문답을 나누고 돌아온 일을 기록한 <배면암최찬정일록>, 간재 전우가 위독하다는 것을 듣고 부안 계화도에 찾아가 임종을 지키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기록한 <화도산양록>, 호남 유림 대표로 추대되어 화양동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화양동유록>,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금강산유록>,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두류산유록>이 그것이다.

8편의 일기를 살펴본 결과 내용적 특징을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스승 간재 전우와 관련한 여러 경험을 담고 있었다. 김택술은 1900년에 간재 전우를 처음 만나 스승으로 섬겼으며, 22년 후인 1922년에 간재 전우는 세상을 떠났다. 간재 전우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은 <금화집지록>에, 간재 전우가 임종을 맞고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은 <화도산양록>에 담겨 있었다. 간재 전우의 문집 간행 관련 갈등도 일기에 담겨 있으며, 간재 전우 사후 김택술이 유람을 떠난 일을 기록한 일기에도 전우는 등장하여, 김택술이 평생 스승을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시국과 당대 사람들의 미시적인 삶을 다양하게 담고 있었다. <화도산양록>은 1922년 7~9월 간재 전우의 임종과 장례를 기록한 일기로, 당시 장례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유교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르되 일제하라서 고민해야 했던 부분도 볼 수 있었다. 1925년에 전주 검사국으로 가 조사를 받은 일을 기록한 것이 <진영화사일완행일기>로,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일이 핵심적으로 등장하였다. 유람을 기록한 일기에도 당대의 시국이 자연스럽게 담기는데,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미국인에 대한 기록을 <두

류산유록>에서 볼 수 있었다.

셋째, 화양동, 금강산, 지리산 등 명승 유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유람 중 지은 시를 담고 있었다. 김택술의 일기 8편 중 <화양동유록>·<금강산유록>·<두류산유록>은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편수로는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일기의 분량은 이 3편이 다른 5편의 약 2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였다. 또한 김택술의 시가 <금강산유록>에는 19수, <두류산유록>에는 14수 수록되어 있었으며, <금강산유록>에는 유람 중 일행이 읊은 간재 전우의 시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김택술의 일기는 20세기 초반 한문일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의미가 있다. 20세기 초반은 우리나라의 격동기로, 이 시기는 소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의 핵심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김택술의 일기는 20세기 초반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세기는 한문에서 한글로 주요 사용 문자언어가 교체되는 시기로, 이러한 시기에도 한문일기는 유학자에 의해 풍부하게 쓰였고, 당대를 담는 중요한 자료임을 김택술 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김택술의 일기는 일제강점기 유학자의 다양한 면모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택술의 일기 속에는 스승 간재 전우에 대한 존경과 그의 뜻을 지키려한 모습, 송시열 등 선인에 대한 경모(敬慕)가 담겨 있었다. 또 유교의 의례에 따라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 한 노력이 포착되었고, 명승으로 이름난 산수 유람을 꿈꾸고 이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람의 경우 조선시대 선비들이 산수 유람을 공부의 수단으로 여긴 전통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김택술의 문집 『후창집』은 본집 31권 15책, 속집 11권 5책, 합 42권 20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1~12에 서(書) 536편이, 권13~19에 잡저(雜著) 101편이 실려 있는 등 방대한 산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한시도 약 1,500수에 이른다. 김택술이 근현대 전북의 유학자·문장가·교육자로 이름난 사람이며, 방대한 작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에 와서 관심이 시작되고 있으며, 아직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의미 있는 작품이 많다. 일기를 비롯한 김택술의 다양한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의 소중한 작품들이 현대에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김택술, 1988, 『後滄集』, 여강출판사.

김택술 저/황갑연 외 역, 2021~2023, 『후창집』 1~8, 한국학호남진흥원.

2. 단행본

강정화·황의열 편, 2016,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2016~2019, 『금강산유람록』 1~10, 민속원.

김미선, 2018,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정치영, 2014,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최석기 외 역, 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최석기 외 역, 2008, 『지리산 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최석기 외 역, 2009~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3~6, 보고서.

최석기 외 역, 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6, 보고서.

3. 논문

강동석, 2023, 「金澤述 詩에 있어서의 相衝的 意象과 그 含意」, 『한국시가문화연구』 52, 한국시가문화학회, 223-249쪽.

김근호, 2022, 「후창 김택술의 간재 성리설 계승과 그 의미」, 『공자학』 47, 한국 공자학회, 213-241쪽.

김미선, 2019a,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151-182쪽.

김미선, 2019b,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3-36쪽.

김미선, 2020, 「기행일기로 본 조선시대 명승지」, 『한민족어문학』 89, 한민족어문학회, 117-145쪽.

김승룡, 2023, 「後倉 金澤述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擬古詩를 중심으로」, 『

- 한국문학논총』 95, 한국문학회, 63-93쪽.
- 김유빈, 2019,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관조선사』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욱, 2020, 「조선시대 임종 장례 일기 연구」, 『한문학논집』 56, 근역한문학회, 73-101쪽.
- 박순철, 2009, 「後滄 金澤述의 學問과 思想」, 『유교사상문화연구』 36, 한국유교학회, 141-179쪽.
- 박순철, 2015, 「後滄 金澤述의 文藝論研究」, 『중국학논총』 46, 한국중국문화학회, 183-205쪽.
- 박찬모, 2015, 「일제 강점기 지리산유람록에 대한 시론적 고찰」, 『남명학연구』 4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61-297쪽.
- 배제성, 2023, 「『생지위성』 해석을 통해 본 간재학과 성리설의 특징-간재 전우와 후창 김택술을 중심으로」, 『유학연구』 65,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5-83쪽.
- 신상후, 2023, 「간재 기질체청설의 계승과 발전-후창 김택술의 심성론을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76, 한국철학사연구회, 37-73쪽.
- 엄찬영, 2022, 「『관조선사』에 나타난 김택술의 역사관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79, 한민족문화학회, 305-329쪽.
- 이상균, 2013,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천승, 2016, 「간재 전우의 자존의식과 강학활동」, 『유교사상문화연구』 63, 한국유교학회, 59-84쪽.
- 최은주, 2009,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5-40쪽.
- 함영대, 2023, 「후창 김택술의 역사인식과 대처-20세기 유교 지식인의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논리」, 『한문학보』 49, 우리한문학회, 101-138쪽.
- 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4. 기타자료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http://diary.ugyo.net/> (검색일: 2025.2.17.)

호남국학종합DB, <http://db.hiks.or.kr/> (검색일: 2025.2.17.)

<Abstract>

The Diaries and Significance of Modern Confucian Scholar Kim Taek-sul from Jeonbuk

Kim, Mi-sun *

This paper marks the first comprehensive study of the diaries of Hu Chang Kim Taek-sul (1884 - 1954), a Confucian scholar from Jeonbuk in the modern era. The research identifies the key characteristics of Kim's diaries and provides an interpretation of their meaning. In Kim Taek-sul's anthology, 『Huchangjip(後滄集)』, there are eight diaries included: <Jinyeonghwasailwanhaengilgi(震泳禍土日完行日記)>, <Geumhwajipjirok(金華執贊錄)>, <Sinmunhwarok(莘門話錄)>, <Baemyeonamchoechanjeongillok(拜勉菴崔贊政日錄)>, <Hwadosanyangnok(華島山樑錄)>, <Hwayangdongyurok(華陽洞遊錄)>, <Geumgangsanyurok(金剛山遊錄)>, and <Duryusanyurok(頭流山遊錄)>

After reviewing the eight diaries, three key content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First, they contain various experiences related to Kim Taek-sul's mentor, Gan Jae Jeon U (1841 - 1922). The account of his first meeting with Jeon U is recorded in <Geumhwajipjirok(金華執贊錄)>, while the entire process from Jeon U's final days to his funeral is detailed in <Hwadosanyangnok(華島山樑錄)>. Second, the diaries depict a wide range of experience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at the time. In particular, <Jinyeonghwasailwanhaengilgi(震泳禍土日完行日記)> highlights the hardships Kim Taek-sul faced under Japanese rule as a central theme. Third, the diaries offer detailed descriptions of Kim Taek-sul's travels to famous scenic spots such as Hwayang Valley, Geumgang Mountain, and Jirisan, along with poems he composed during his journeys. <Hwayangdongyurok(華陽洞遊錄)>, <Geumgangsanyurok(金剛山遊錄)>, and <Duryusanyurok(頭流山遊錄)> are devoted to these excursions, with their combined length being nearly double that of the other five diaries, showcasing the richness of his travel accounts.

Kim Taek-sul's diaries, encompassing such a diverse range of topics, offer valuable insights into the status of Sino-Korean diaries in the early 20th century.

* Lectur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urthermore, they provide a comprehensive view of the multifaceted life of a Confucian schola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king them a significant historical document.

Key Words : Hu Chang Kim Taek-sul, 『Huchangjip(後滄集)』, Diary, Gan Jae Jeon U,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Scenic tours to famous sites